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역할 '톡톡'

운영 1년 안전위험요소 등 1317건 신고... 시정 706건, 보수 4보강 456건 조치, 155건 처리 중

전북도 만의 독특한 안전봉사 활동 모델인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은 전북도 자체적인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선제적 재난예방'에 포커싱돼 있는 민간자원 봉사 활동모델이다.

지난해 11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4개 시군에서 20~30여명 정도, 총 436명으로 구성·운영한지 1년이 됐다.

민간예찰단은 재난위험 및 안전사각지대, 주변의 안전위험요소 등을 발

굴, 총 1,317건을 신고해 현지시정 706건, 보수·보강 456건을 조치하고, 나머지 155건은 처리 중에 있어 전북도 안전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지반 침하, 해빙기 붕괴, 낙석 등 위험지역 예찰활동에도 적극 기여했다.

아울러 자체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매월 4일 실시하는 해당 시군의 안전점검 관계인 등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며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내년에는 재난예방

민간예찰단과 안전관리지문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점검 민관합동 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우수 민간예찰단을 선정해 기관 및 개인 표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며 계절별·시기별로 도, 시군, 전문가와 합동으로 예찰활동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는 2일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활동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우수 예찰단체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2016년도 예찰활동 성과와 2017년도 운영계획을 설명했으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우수 민간예찰단장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정읍시 백인출 예찰단장은 "내 지역은 내가 지키는 신념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역 내 위험요소를 신고하여 조치된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더욱 활성화해 민간 주도적 재난예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내년 2월부터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위험요소 신고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쌀고정직불금 이달부터 지급

1374억4100만원 시군 통해

전북도가 쌀고정직불금을 이달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논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374억 4,100만원을 이달부터 시군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며,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두 차례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한다.

이번 직불금 지급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경작자이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전북도는 총 9만539농가, 13만 6,676ha가 해당되며, ha당 진흥지역 107만 6,416원, 비 진흥지역 80만 7,312원이 시·군을 통해 지급된다.

또한 이번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들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고정직불금과 더불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자체 쌀직불금 총 745억원(도 120억, 시군 625억)과 벼값 폭락 대책비 150억(도 40억, 시군 110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나득수 '영원한 사랑' 대상 전북산업디자인대전 성료

321점 출품... 금상 이성은 34작 수상 · 177점 입선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전북 산업디자인협회가 주관한 제30회 전라북도 산업디자인대전 전국 공모전 시상식이 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메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각·포장,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품·실내·환경, 산업공예, 텍스타일까지 총 6개 디자인 분야 321점이 출품돼 대상 등 34작 수상, 177점 입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장관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부여되는 명예의 대상에는 산업공예 디자인 작품인 '영원한 사랑'을 출품한 나득수(주)이레트레이딩)가 금상에는 이성은(패키징디자인), 은상에는 이성은(공주대), 정경화·김재현(한양대), 이지원·추술미(군산대)가 각각 수상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30회 전라북도 산업디자인대전 전국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산업공예디자인 작품인 나득수씨의 '영원한 사랑'을 둘러보고 있다.

대상 수상작인 '영원한 사랑'은 다이아몬드를 금속에 세팅한 작품으로, 천연다이아몬드 원석의 순수한 결정체와 견고함을 작품에 담아 '영원한 사랑을 약속 하는 커플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했다.

전해주조법을 다이아몬드에 적용해 높은 기술성과 더불어 귀금속디자인 분야에 차별성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산업디자인대전은 우수디자이너 발굴과 지역의 산업디자인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그 업적과 성과를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전북산업디자인협회 김경숙 회장은 "이번 산업디자인 대전을 통해 디자인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진보적 비전을 공유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도 디자인산업 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 참여한 송하진 지사는 "30회 행사까지 전북 산업디자인 분야를 이끌어온 산업디자인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도에서도 디자인센터 설립을 준비하며, 중장기적으로 전북 디자인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조직개편 내년 1월부터 시행

전북도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감염병 연구 전담부서 신설 등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혁신도시추진단과 전북어린이회관 등 2개 사업소는 폐지되며, 감염병 연구 전담부서와 인공센터·현장

조사분석팀 등이 신설된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명칭이 변경된다.

분청 기구는 현행 12실·국 56관·과·단 234팀에서 12실·국 55관·과·단 229팀으로 1과 5개팀이 감축된다. 정원은 55명 증원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14일 도의 회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도, 5년 연속 '소비자 권익증진 우수기관' 수상

전북도가 시행하는 특수거래분야 소비자불만 ZERO화 사업 등 지역 특화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소비자행정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5년 연속 수상했다.

전북도는 소비자불만 ZERO화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감시단'을 운영해 도내 등록돼 있는 방문·전화권

유·통신판매업자 9,065개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내년에도 소비자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표창을 소비자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수렵장 축소 운영... AI 확산방지위해

AI 발생 인접지역 수렵자제 권고, 수렵한 동물은 밀봉운반

전북도가 AI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수렵장에 대해 수렵지역 축소 및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AI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자 도내 동절기 수렵장 운영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코자 '수렵장 운영관련 도·시·군 긴급회의'를 지난달 25일 개최했다.

대응방안으로 시·군 방역대책본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AI발생 인접지역 수렵자제 권고, 지역별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한 소독실시, 수렵한 동물은 밀봉 운반, 열처리 사용 등을 SNS를 통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문자 안내토록 하고, 필요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감시 인력 보강, 수렵지역 축소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시·군 방역대책본부와의 대책 회의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읍시에서는 수렵인에게 수렵과 가금류 이동시 주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각 주소지로 공문을 보내는 등 방역에 주의하고 있으며, 축산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AI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이 야생조류 AI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정읍시(환경관리과)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1일 회의를 거쳐 수렵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완주군은 지난 달 28일 AI 발생지역과 인접한 이서지역을 수렵지역에서 제외했고,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감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총 41명이 수렵장 운영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국내 AI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발생지역 인근 수렵활동 금지를 지속적 문자 안내하고, 철새도래지인 민강강 수변에 수렵금지 현수막을 게재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무주군 공고 제2016-892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고 ·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과업의 개요
 - 가. 용역명: 무주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 나. 과업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소하천 344개소 일원
 - 다. 과업범위: 관내 소하천 344개소, 연장=447.21km
 - 라. 용역시행자: 무주군수
 - 마. 승인기관: 전라북도지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2016. 12. 5. ~ 2016. 12. 27.
 - 나. 공람장소: 무주군 안전제년과,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 다. 관계도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
 - 가.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10:30
 - 나. 장 소: 무주읍사무소(2층 대회의실)
4. 의견제출 및 방법
 - 가. 제출기간: 2016년 12월 5일~2017년 1월 4일
 - 나. 제출장소: 무주군 안전제년과,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 다.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서면 제출
 - 라. 제출의견: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
5. 기타
 - 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무주군청 홈페이지(www.muju.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안전제년과(☎063-320-2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5일 무주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